

†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는 젊은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여러 형태의 신앙 교육을 통해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성숙하고 책임있는 역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평신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누룩과 빛이 되고 있다. 하느님 모상인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낙태와 인간 배아 복제 연구, 사형제도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소공동체 활성화와 온갖 쇄신·심화 운동을 통해 건실한 가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 평화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온 교회는 새롭게 대두된 타민족 존중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힘쓰고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교 일치와 타종교와의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대북 지원 등을 통해 화해와 일치, 나아가서는 평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분단된 이 나라 북녘에는 세 곳의 교구가 있으나 아직 종교 자유가 전혀 없으며 1950년 이래 단 한 사람의 성직자와 수도자도 상주하며 사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와 의료 복지에도 교우들이 단결하여 많은 활동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은 도움을 받던 과거에서 한층 성장하여 세계 60여 개 나라에 사제·수도자·선교사들을 현지 교회를 위해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을 찾아 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렇듯 하느님의 특은으로 역동적이고 고무적인 처지에 있는 반면 염려스러운 과제도 안고 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전반의 물질주의적 세속화와 경쟁적 개인주의화, 그리고 상대주의에 덩달아 물들면서 가정의 급속한 외해라는 위기를 맞고 있고, 안으로는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데에서 오는 냉담율의 증가와 성소자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 어떻게 해야 진정 복음을 삶으로써 이 사회에 입증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와 세계 교회 교우분들의 기도와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는 때를 맞고 있다 하겠다.

● 해외 선교 현황

사제:128명/ 수도자:506명 (수사:46명, 수녀:460명)

● 해외 교포 사목

61개국 – 성당:163개, 공소:162개, 사제:193명, 수도자:137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143-912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643-1
100-6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Tel.(02)460-7500/Fax.(02)460-7505
www.cbck.or.kr



한국 천주교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교회

한국 천주교는 이례적으로 선교사의 도움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교회이다. 참 신앙에 관심을 갖고 모여 공부하며 실천하던 모임의 한 사람인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이 땅에 신앙공동체가 생겨났다.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신분제가 있던 당시 조선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신생 신앙 공동체는 여러 차례의 가혹한 박해를 받아 100여 년 동안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순교하면서 성장하였다. 1984년 서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교회의 순교자 103위를 성인품에 올렸다. 이렇게 순교자의 피로 성장한 한국 교회는 삼천년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회 정의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나가고 있다.

† 한국 천주교 연대표



† 종교별 인구 비율

